

# 전북도, 4차산업 미래농업 이끈다

### 도 - 국회 - 농진청,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및 농촌진흥청은 8일 농촌진흥청 1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농업,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포럼의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리승용 농촌진흥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북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전자부품연구원, 전

북대, 전주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라북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농촌진흥청은 '4차산업 벨리 구축'을 위한 상호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력 협약내용은 4차산업 플랫폼 구축 및 전북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구축을 위한 5개 클러스터(식품, 전자, ICT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육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미래형 신산업 육성, 융합형 인

재양성, R&D 분야의 규제개선, 산업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전라북도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회 차원의 예산확보와 중앙부처의 정책 반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토론으로는 이용범 농촌진흥청 4차산업혁명대응단 단장이 '4차산업혁명과 농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승현 전북연구원 농업농촌식품연구부 위원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조성 기반구상'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어젠다로 채택했는데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농생명 기술과의 결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팜, 정밀농업,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대한민국을 '글로벌 스마트 농생명산업 강국'으로 이끌어 가는데 전라북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금리 연 1% · 최대 2억원

### 이달 말까지 대출 실행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희망자에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1~2월에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희망사업자 167여가에게 해양수산부로부터 142억을 배정받아 7월말까지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일부 어가의 신용보증한도 및 담보제공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일부 미 대출잔액(24억원)이 발생해 신규사업자를 추가로 모집(8.28~9.8), 지원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9월말까지 대출 실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구매 실적 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를 증빙하면 되며, 융자금은 연 1%로 1년 거치 후 2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위험을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어가에 대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진안군 인구절벽 돌파구 모색

###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

진안군생활자치포럼은 지난 8일 인구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농산촌 인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구정책 토론회를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이항로 군수, 박희우 전북생활자치포럼 대표를 비롯한 진안생활자치포럼 회원과 주민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박영복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장은 '귀농귀촌 정책의 운영 실태'라는 주제로, 양갑석 진안생활자치포럼 교육위원은 '진안의 교육현황 및 문제점', 양병렬 위원은 '지역 사업 활성화 방안', 김남수 군 인구정책담당장은 '군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

참석자들은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과 시책들을 분석하고 현실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구 늘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진안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 적극적인 출산 장려와 전입유도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문화·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맞춤형 귀농·귀촌정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다 지체와 차별화된 인구 늘리기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인구 감소에 구조적 정책의 운영, 일자리와 교육, 주거,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북 사회복지대회 700여명 한마당

전북도는 제18회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8일 도청 공원에서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전북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병관)가 주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중희 국회의원, 서삼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각급 기관단체장과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사회복지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도지사 표

창 등 총 40명)에 대한 표창과 사회복지인들의 찬다운 복지실현을 위한 퍼포먼스,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낭독,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어 사회복지인들이 화합을 다지고 한껏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

'2017 전북사회복지대상'에 전라북도 최초 여성 가정복지국장을 역임한 오영순(여)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하진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인과 유공자 표창을 받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따뜻하고 밝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도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전달식에 송하진 도지사서와 서철교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17개 업체 대표들이 지정서를 받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지역경제 견인차 '예비사회적기업' 17개사 선정

### 좋은 일자리 실현 첫 발 전북대표 기업 성장 기대, 경영컨설팅 등 지원

송하진 도지사는 8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17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은 기업 대표들에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대표들은 한결같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역할이나마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산 및 인력양성,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프로보노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및 회계, 노무, 판로 개척, 경영컨설팅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신규지정 17개를 포함 예비사회적기업이 63개, 인증 사회적기업이 110개, 총 173개가 운영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